보 도 자 료

배포시부터 보도 가능

담당부서	서민금융지원국	조성목 선임국장(3145-8150), 김용실 팀장(3145-8521) 김상록 팀장(3145-8129)		
배 포 일	2015. 3. 31.(화)	배포부서	공보실(3145-5789~92)	총 2매

제 목 : "금융감독원 직원 박선영"을 주의하세요.

1 개 요

□ 지난 3월 5일부터 '**금융감독원** 은행전산보안팀 **이동수과장**'을 사칭한 보**이스피싱 유도문자**가 **기승**을 부린 가운데 이어서

□ 사기조직은 **금일 오전부터** 문자메시지 상 금융감독원 직원의 이름을 '**이동수과장**'에서 '**박선영**'으로 **변경**하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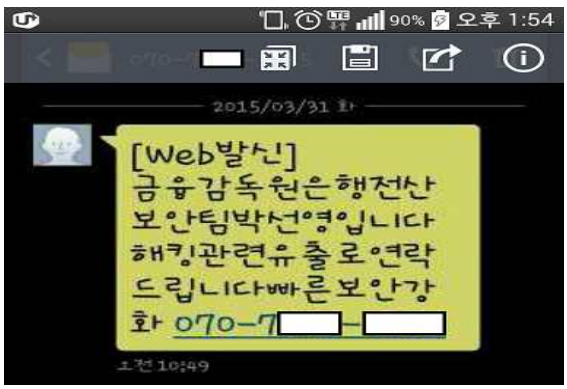
○ **금일 오전중**에만 동 사기유도 **문자를 수신**한 **제보**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(☏1332)에 **20여건에 육박**하는 등

□ **감독당국**의 **대응을 회피**한 **보이스피싱 시도**가 여전히 **지속** 되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자의 **각별한 주의**가 **요망**됨

(지정된 번호로 전화시 통화내용)

◈ 본인의 계좌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인터넷뱅킹이 이용된 기록이 있어, 계좌보안 강화조치를 취해야 하니 '금융감독원 은행전산보안팀 직원 박선영'이 전화를 하면 요구하는 정보를 알려주도록 할 것

(SMS 화면)



2 유의 및 당부사항

1 **금융감독원은 특정 전화번호**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**금융거래정보를 요구**하는 **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으며**, 이는 **100% 보이스피싱 사기**에 해당되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

> (☞ **대처방법**) 사기범들은 대포폰 등 범죄목적으로 개통된 **또 다른 전화번호**로 **유사한 내용의 사기전화를 발신**할 가능성이 높음
>
> →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신고전화(☏02-3150-2659)로 신고 요망

2 **문자메시지상 출처가 불분명한 수신 전화번호 각별히 주의**

○ **공공기관**을 **사칭**, 각종 **전자금융사기 예방** 등을 **빙자**하여 전화를 **유도**할 경우에도 **반드시 출처를 확인**해야 함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http://www.fss.or.kr